

구김을 응용한 패션소재 연구

조 말 희

동서울대학 의상디자인과

패션은 인간내면의 가시적인 표출도구로 시대상황이나 유행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복고, 전통, 미래지향 등의 주기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패션의 역할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 내는데 있으며 형태, 색상, 소재는 패션의 중요한 조형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소재는 다양한 질감효과나 표면형태에 의해 패션에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현대패션에 사용되는 소재들은 디자인 의도를 예술적인 감성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다. 접거나 울을 풀고, 묶기도 하며, 주름을 접는 등의 아이디어로 소재가 단지 옷감으로서만이 아니라 패션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구김을 응용한 패션소재는 현대인의 시대 정신적 감성을 잘 표현한다고 본다. 구김은 불규칙한 선으로 접혀진 것으로 계획적인 의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조형형태이다.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질서정연한 논리들이 구김이라고 하는 탈구성적인 표현방법 속에 융화되면서 미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서로 다른 감정의 양면성은 인간의 자아표현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며 이는 패션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다. 구김의 물 형식성은 불균형과 부조화, 비대칭과 같은 자유로움으로 새로운 미를 표현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억압되어있던 감정이 구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출되며 형식을 배제하고 무질서 속의 조화를 시도하게 된다.

구김을 응용한 소재는 그 자체로 복식미를 갖게 되는데 그 미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적 창조성을 갖는다. 미(美)란 감성적으로 인식되는 미학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미와 주관적인 미로 나눌 수 있는데 주관적인 미는 인간의 정신방향에 중심을 두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구김은 비대칭, 불균형, 불완전의 형태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전통적인 사고를 해체시키고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창조성을 인정하는 형태이다.

둘째, 탈구성적 가시성으로 부재, 허구, 추상의 개념을 우위에 두고 구체화시킨 작업으로 주름을 축소하거나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구성적 형태는 왜곡, 강조, 도치의 기법을 가시적으로 표출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한다.

셋째, 감성적 다원성으로 시간과 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다원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미와 추, 정숙과 비정숙, 대칭과 비대칭, 조화와 부조화 등 모든 가능한 양면가치를 추구하면서 미적 요소를 극대화시킨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김은 내적인 미의 가치를 불규칙한 형태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패션에서 보다 더 독창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소재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참신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션의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